

베드로후서 1장

1.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였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의 겸손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1)과 다른 믿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김(1)
2. 종이면 종이고 사도면 사도지, 종이면서 사도라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종이다.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임무가 있다.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굴복할 수 없는 권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사도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처럼 섬기는 자세와 말씀을 대언하는 무서운 권위가 함께 있어야 한다.
3. 우리가 어떻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믿노라고 고백하고 교회를 충성으로 섬겨도 그 공로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믿음은 오직 그 분의 선물일 따름이다. 그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충성할 뿐이다.
4.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3절의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심(3): 결과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것이다(2);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단어(그노시스)가 아니라 확실한 지식(에피그노시스)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정확하고도 올바른 지식이다.
5. 하나님께서 의(1)와 능력(3)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2), 영광과 덕으로(3)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 이와 상대적인 개념이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이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들어온 것이다. 신의 성품이란 바로 이 썩어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6.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4)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는다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가 장차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준비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리스도의 재림, 새 하늘과 새 땅, 그 곳에서의 영원한 삶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7. 흔히 믿음만 있으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5-7절을 근거로 본다면 베드로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셈인가?
기초, 토대, 출발점(롬 5:14, 히 11:6): 기초가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기초만 닦아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위에 아름다운 교물을 지어 올려야 한다. 기초를 중요하게 말하다보니 기초만 닦으면 다 된 줄로 아는 사람이 많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리스도인다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덕(도덕적으로 탁월함), 지식(지혜),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이 필수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된다.
8.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고전 13장과 본문의 5-7절을 비교하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고전 13:13)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 하라는 말씀(7)은 동일한 말씀이다.
9.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믿음만으로 불완전한가?
 그리스도를 알고 열매 맺는 삶(윤리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런 덕이 필요하다. 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다. 힘써 이런 덕을 쌓지 않으면 소경이요,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을 잊어버린다(9).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윤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었는데 베드로후서를 쓴 목적이 바로 이런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반박이다.
10. 믿음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을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믿음: 믿음 없는 다른 덕목은 기초 없는 교물이어서 소용이 없다. 믿음 위에 세워져야 이런 것들이 소용이 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만 그 위에 아름다운 교물을 세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믿음만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믿는 자는 윤리적으로도 탁월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11. 게으르면 열매가 제대로 맺힐 리가 없다. 그런 맥락에서 '게으른 것'과 '열매 없는 것'은 거의 동의어이다(8) 여기서 무슨 열매를 말하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고 힘써 노력해야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이다. 믿는 것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라는 권면이다. 믿음에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따르게 마련이다.
12.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지, 굳이 '힘써야 하고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하는가(10)?
 성령의 사역에 성도가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래서 실제로는 그 분께서 다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아는 성도는 힘껏 노력해야 한다(5, 10).

13.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12, 13, 15)는 말은 당부할 게 있다는 말이다. 무엇 때문에 당부의 말을 하려고 하는가?

죽을 때가 다 되었기 때문이다: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은(14)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말이다.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12) 거듭, 거듭 당부하고 싶어 한다. 떠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이다.

14. 베드로가 장막을 벗을 것을 예수께서 지시하셨다고(14)?

원하지 않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21:18-19). 단순히 늙어죽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절감하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이다.

15. 거듭 거듭 당부하는 것, 자신이 떠난 후에도 성도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16)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19) 밀레도에서 행한 바울의 작별인사(행 20:23)와 다르지 않다. 12절의 '진리'; 15절의 '이것들'이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맥을 따른다면 이것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셈이다.

16.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는가?

친히 보았고(16) 들었기 때문이다(17-18) 이것은 변화산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마 17:1-9, 막 9:2-10, 눅 9:28-36). 단순히 보고 들은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거의 정신이 나갔을 정도로 놀라운 광경이었다. 생생하게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런 확신을 가졌을 것이다.

17. 보고 들은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나 베드로는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 무엇이 그러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러므로 날이 새어 세상이 환해질 때(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등불을 주목해야 한다).

18. 성경말씀을 사사로이(임의로, 자기 멋대로) 풀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지자 개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선지자가 전해주었다 해도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성경을 풀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분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성경을 풀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원칙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학식이나 학문의 깊이가 성경을 푸는 열쇠가 아니다.

베드로후서 2장

- 1장의 마지막 부분(1:20-21)과 2장의 시작 부분(2:1-3)이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지 찾아보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선생)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1:16 공교히 만든 이야기)
- 베드로전서는 외부에서 닦쳐오는 시험을 잘 이겨내도록 당부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베드로후서는 무슨 목적으로 기록했을까?
내부의 거짓 선생들을 경계시키려고(1)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거짓 선생들(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그릇된 가르침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컸던 모양이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1:6-7절에 있다.
- 2장에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경고한다. 이들이 하는 짓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16) 결과로 자기들을 사신(bought)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된다. 1절 후반부가 전체의 요약인 셈이다. 히브리 문학의 표현양식 중에는 서두에 짧막하게 전체를 요약한 다음 구체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 흔히 쓰인다.
-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신 목적은 사랑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희생과 헌신을 요구했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2-3)?
호색(2) 탐심(3) 사이비나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온당치 못한 성적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에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악한 행위의 바탕에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외에 한 가지 특징을 더 첨가한다면 10절의 '교만'이다.
- 선생님들이 학생을 사랑이나 훈육의 대상으로 여겨야 하는데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면 얼마나 실망스럽겠는가? 베드로가 보기에 거짓 선생들이 바로 그러하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로 이(利)를 삼으니
-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자지 않는다는데(3) 실제로는 이단들이 온통 세상을 휘저으면서 잘 먹고 잘 살기도 하던데?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우리 눈에는 그들이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
- 거짓 선생들이 누구처럼 심판을 받게 될까?
범죄한 천사들, 옛 세상(홍수이전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이들은 곧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이다(10).
-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영망진창이 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같기를 바라는가?
노아네 식구들, 롯: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 되지 않는다(눅 18:8) 멸망당할 세상이야 어쩌려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살기를 바란다. 롯을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의 죄악 속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고통을 겪었음을 표현하는 말이다.
- 거짓 선생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간이 크다는 점이다. 심판이 있다고 해도 도무지 겁을 내지 않는다(106). 이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간이 큰가(참고 유 1:9)?
 천사장 미가엘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점을 언급한 것(11)으로 보아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인 양 행세한 모양이다.
- 거짓 선생들이 천사들보다 더 권세 있는 자처럼 담대했지만 실상은 무엇과 같은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12) 도축용 가축을 가리키는 말이다. 편안하게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니까 제가 잘 나서 그런 줄 알고 큰 소리치고 있는데 실상은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 거짓 선생의 특징은 아무 것도 모른다는 점이다. 뭘 모르나(12-14)?
그러다가는 죽을(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12절에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말은 자신들의 운명이 죽을 운명이라는 의미이다. 그게 죽는 길인 줄도 모른 채 설쳐대고 있다(뺨방, 불의, 연락, 음심, 탐욕).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라는 말은 '그 짐승들 같이 멸망을 당하며'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대부분의 다른 역본들).
- 12절에서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 하나를 찾는다면?
알지도 못하면서 휘방한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나선다. 회심하기 전의 사울이 그랬다(딤후 1:13). 서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교통사고가 나도 싸우면(우기면) 이긴다? 아무리 그래도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불의를 저지른 대가로 자신도 불의를 당하게 된다.

13. 낫술이라는 말이 있다. 대낮에 술을 마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대낮부터 무슨 술이냐고 비아냥거릴 때 쓰인다. 거짓 선생들이 그랬다는 말이 어디에 있는가?

낫에 연락(宴樂: 술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즐김)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연회에서 술을 마시고 향락을 즐기는 것은 밤에 하는 법인데 대낮부터 이러니 밤에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14. 이런 거짓 선생은 점과 흠이다. 점과 흠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점은 없애거나 지운다, 흠은 가리거나 수선해서 표시가 나지 않게 한다: 아무런 유익이나 소용이 없으므로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벧후 3:14).

15. 혼히 하는 말로는 술 한 잔 하면서 속에 든 것을 다 털어버린단다. 그러니까 함께 술을 마시는 사람을 속이는 것은 정말 너무하는 일이다. 거짓 선생들이 그랬다는 말이 어디에 있는가?

연회할 때에 간사한 가운데 연락(宴樂)하며: 술을 마시며 웃고 즐기는 가운데서도 간사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얼마나 고약한 사람들인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을 참고하면 '어떤 여자를 잡아먹을까?'만 궁리하고 있는 셈이다.

16. 못된 짓을 하는 아이들은 자기만 그럴 뿐 아니라 못하겠다는 아이들을 억지로 물들이는 것을 즐긴다. 거짓 선생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14): 베드로는 예수님께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눅 22:32). 아마도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

17. 연단이란 갈고 닦는 것이다. 갈고 닦지 않아도 누구나 잘하는 일도 많다. 가령, 먹고 노는 일은 별로 연단할 필요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거짓 선생들은 무엇을 연단하였는가? 이걸 갈고 닦는 사람은 칭찬을 해야 하나?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14): 칭찬은커녕 저주받을 짓이다.

18. 어떤 점에서 발람은 거짓 선지자들의 표본이 되는가?

불의의 삿을 노리다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었다(16, 민 22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도리어 짐승에게 책망을 받았으니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19. 우리는 혼히 '양꼬 없는 찐빵'이라는 표현을 쓴다. '물 없는 샘'이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비교하면 어떤가?

양꼬 없는 찐빵은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뜯어먹을 밀가루라도 있지만 물 없는 샘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갈증과 허탈감만 안겨준다. 안개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듯싶어도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허무한 것이다. 거짓 선생들이 교훈이 이런 것이고 이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 되어 있다.

20. 18-19절은 말이 너무 복잡하다. 이것을 조금 고쳐 읽으면, '저희가 미혹을 간신히 벗어난 자를 음란으로 유혹하여 자유를 준다 하여도 결국은 멸망의 종이 되게 할 뿐이니라'가 된다. 거짓 선생들이 성도를 유혹하는 것에 어떤 단계가 있는가?

1차 관문: 미혹,

2차 관문: 음란.

육체의 정욕을 유혹의 도구로 쓸 때 이겨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기서 넘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고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요셉이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1. 아무런 제약도 없는 성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성적 자유를 억압하는 순결, 동정의 개념을 없애고, 심지어 결혼이라는 제도를 폐지하고 원하는 어떤 사람과도 마음대로 성을 누릴 수 있어야 인간의 자유가 신장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본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음란이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유혹하지만 결국은 멸망일 뿐이다(19):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살자는 것은 그럴듯해 보여도 한 마디로 개처럼 살자는 얘기다(22). 개는 자라면 어미와도 교미를 한다고 한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리고 짐승이 되는 길이다.

22.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거짓 선생들의 꾀임에 빠지는 것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개나 깨끗하게 씻겨주어도 더러운 구멍이에 도로 눕는 돼지: 원래 개나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었던 짐승인데 하는 짓마저 이 모양이다.

베드로후서 3장

1. 둘째 편지? 그러면 첫째 편지는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2. 베드로에게는 글 쓰는 일이 어려웠던 모양이다. 수재자였지만 달랑 이 편지 둘밖에 쓰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런 베드로가 어렵게 편지를 두 통이나 쓴 이유를 1, 2, 14절을 근거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1)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2)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려함(14)이다.

3.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란 표현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구약과 신약: 거룩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를 의미하며 동시에 기롱하는 자들과 대비된다. 신약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주어졌 것이지만 기원은 주님께에서 나온 것이다.

4. 베드로가 보기에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 잊어버릴 위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주의 재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면서 주의 강림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다. 주의 재림은 주께서 친히 약속하셨고(마 24:34) 천사들도 증거했으며(행 1:11) 사도들이 증거한 것인데(살전 4:15, 살후 2:1, 벰전 4:7) 이것을 부정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5. 말세에 기롱(譏弄: 속이거나 조소하여 놀림)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초대교회 당시에 벌써 걱정할 이유가 있었을까?

여기서 말세는 초대교회 당시를 가리킨다. 예수의 재림을 임박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이다. 오늘의 입장에서 정리한다면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6. 아무리 말이 그럴듯해도 ()을 좇아 행하는 자는 기롱하는 자이다.

자기의 정욕(세속적인 욕심)

7. 기롱하는 자들이 무엇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가? 또, 이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무엇인가?

변하지 않은 세상(4): 만물이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면(5)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이란 말도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물과 분리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기롱하는 자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 '고의로' 잊으려고 한다고 비난한다.

8. 기롱하는 자들은 과거의 누구와 같은가?

노아 시대에 홍수가 무슨 소리냐고 비웃다가 물에 빠져 죽은 자들과 같다: 홍수 사건은 세상이 과거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게 아니더라는 예시이기도 하다. 물에서 나온 땅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왜 다시 심판하지 못하겠느냐는 말이다.

9.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던가?

물로는 안 한다고 하셨다(창 9:11, 15): 그러니 이제는 불이다(단 7:9-12, 율 2:30-31). '그 동일한 말씀'이란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수로 멸하시기도하신 그 말씀을 가리킨다.

10. 종말은 무슨 종말? 이것은 지나간 '오랜 세월'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종말이냐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반박하는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이지만 하나님께는 오랜 세월이 아니다(시 90:4).

11. 세대주의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역사를 1000년씩 6세대로 나눈다. 1세대: 창조에서 노아, 2세대: 노아에서 바벨탑, 3세대: 바벨탑에서 아브라함, 4세대: 아브라함에서 모세, 5세대: 모세에서 예수의 초림, 6세대: 예수 초림에서 재림까지이다. 6일간 창조 후에 7일에 안식하신 것처럼 제 7세대는 천년왕국의 시대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무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는 이미 2000년이 지났다. 1000년이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모세와 예수의 초림은 약 1500년 정도,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단순 계산으로도 1650년 정도 된다.

12.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정도로 동작이 더디실까?

동작이 느린 것이 아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9)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더덕 보이는 것이다. 때로는 사랑이 사람을 바보처럼 만들기도 하지만 반면에 사랑 없는 사람은 추진력도 있어 보이고 박력도 있어 보인다.

13. 주의 날이 왜 도적같이 오는가? 개선장군처럼 오지 않고?

뜻하지 않은 때에 온다는 뜻이다.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해서 재림의 날만은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다.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한다.

14. 여기서 '체질'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성하는 원물질을 가리킨다(다른 역은 '원소, 천체'라고 번역하기도 했다). 이런 원물질이 불에 탄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풀어진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난외주 참고, 10절 끝의 '드러나리라'는 말이 어떤 사본에는 '타지리라'고 되어있음)

만물의 해체 아닐까?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힘은 만유인력이다. 이 힘이 끊어진다면 마치 튼튼하게 서 있는 천막의 줄이 끊어지면 천막이 맥없이 넘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풀어지고 만다. 그렇게 해서 하늘도, 체질도, 땅도 다 타버리면(풀어지면) 뭐가 남지? 새 하늘과 새 땅(의의 거하는 바) 등장하는 것이다(13).

15. 하나님의 날은 더딘 것이 아니라(9) 도적같이 임하여(10)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10)이다. 하나님의 날이 확실히 온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권하기 위해서(11) =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힘쓰라(14)고 권하기 위함이다.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권하는 것이다.

16. 백번 양보해서 재림이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더디다고 하자.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 때문이다(15).

오래 참으시기

17. 바울이 많은 책을 기록한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다. 반면에 베드로는 책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베드로전후서만 해도 자신이 직접 기록하기보다는 구술한 것을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바울과 베드로의 무슨 차이 때문인가?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학문, 혹은 글 솜씨를 가리킨다. 은혜만 받으면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적합하게 사용하신다. 자신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아서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받은 달란트를 갖고 닦아서 잘 사용하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18. 느닷없이 바울 얘기는 왜 하는 걸까?

바울도 재림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19. 바울의 글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단다. 그러면 어떡하지?

억지로 풀지 마라(=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바울이 쓴 글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면 사람이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예컨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루터를 위시한 선각자들이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도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20. 베드로는 글을 맺으면서 무슨 권면을 하는가?

삼가라(=주의해라), 자라 가라